

---

제1회서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1956년9월11일(단기4289년)(수) 상오10시45분

---

의사일정

1. 제5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및위원선거
- 

부의된안건

1. 제5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3面
- 

(10시 45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일로부터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

1. 제5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이성우;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다)

○의장 김진용; 회의록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하는이 있음)

○김규원 의원; 김규원이 올시다.

우리 회의규칙이 이미 통과된지도 벌써 몇일이 되었습니다.

회의록 낭독을 요몇일째 들으면 누구외에 몇의원이 발언을 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히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기록하여 낭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출석의원중에서 의석순에 의하여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록에 반듯이 서명하도록 의장이 지명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김제윤 의원; 본의원이 어제 발언하기를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 한것으로 되어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를 종결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한후 세부적인 토의에 대한 종결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와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어짜피 한번 따지고 나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회의록작성에 대해서 간사되시는 분이냐 또는 일반의원도 여기에 협력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작성에 있어서는 의회규칙 제 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서 첫째 의회의 성립 개회, 폐회, 휴회에 관한 사항과 그 월, 일, 시, 둘째 개의, 연회, 중지와 산회의 월, 일, 시를 기입하고 다음에는 출석공무원의 직, 성명, 의장과 위원장의 보고 회의에 부의된 의안제목과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 성명을 기입하고 다음에는 결의사항 표결과 가결의 수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하는것인데 회의록에 명시되어있는 어떤부분을 제가보기에는 어떤제목은 너무나 상세히 되어있고 어떤제목은 전혀 무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상, 우리의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는 될수있는대로 그것을 준수할것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중대한 안건

이 표결될적에 그것이 만장일치라든가 그렇지않으면 가부에 대한 표시가 정확히 나와야 할텐데 대개 의장께서 거수하라면 우리의원들이 이의가 없습니다해서 통과시키는데 만장일치인지 그것을 한번시키는데가 좋고 그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회의록에대한 작성을 과거에 있어서 이 의회규칙이 통과되든 방식을 떠나서 의회규칙에 의해서 하지않으면 앞으로 조례안의 권위도 서지않을 것입니다.

회의록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지금 김의원(주흥)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회의록낭독에 대해서 소홀한점이 있다는 것을 나로서도 주의시키려 했습니다. 이점 간사가 준비를 안했는지 모르나 이후부터는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말씀하십시오.

---

## 2.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성우; 지금 저의 회의록낭독에 대해서 주의의 말씀이 계시었는데 회의록에는 지금 낭독해 들인것은 중요한 골자만따서 전달에 한 것을 보고해 들인것입니다.

자세한 기록은 여기 속기사가 쓴것을 정리가 되면 “프린트”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보고사항에 있어서 낭독을 해드린것인데 시간관계로해서 뺐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보고사항끝에 종결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그 뺐 부분을 낭독해 들이겠습니다.

(이때 낭독에 누락된 회의록을 낭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은 되어있습니다. 아까 만장일치여부와 數字關係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표결사를 아주 증원해

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부터는 정확한 수자가 나올것입니다.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동순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의되었든 香港에서 분전중인 우리나라 축구선수단에대한 격려전문은 오늘아침에 전보를 쳤습니다. 전문내용을 낭독해들이면 「조국을 위하여 필승할것을 16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여 기원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의원일동」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리고 의회규칙 위원회 조례 의원변상 조례 이것은 이제 모두 수정이 끝나서 저희 사무당국으로 보내주셨기때문에 위원회조례와 의원변상조례는 집행부로 다 이송을 했습니다. 회의규칙은 그대로 어제부터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이 보고하신 수해상황보고는 저희 의회의 사무담당자로서 집행부에다 그 요점을 정식공문으로다가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국과에서 조사해서 선처할줄압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시정과장이 말씀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용; 이로부터…….

(「의장」 하는이 있음)

무엇입니까?

(「보고예요」 하는이 있음)

○이기환 의원; 영등포6구에 이기환이 올시다. 회의의 의사 일정에 오늘 보고사항이라고하여 회의전일에 있어서 혹은 결의사항이라든지 혹은 건의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께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그 의회의 각 의원의 관내에 실정사항을 보고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든 관계로 해서 여러분께서 저희 관내의 실정을 들어주신다면은 이자리에서 저도 보고사항에 하나로써 말씀을 들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의원께서 어제께 각 관내 실정사항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인 본동 흑석동 경계 산정 동양공과 고등학교에서 수복후에 건축을 무허가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할때에 있어서는 배수 장치라든지 석축공사 같은것을 완전히 한 다음에 건축을 했으면 피해가 없을것입니다만은 석축공사도 배수 장치도 일절 착수하지 않고 덮어놓고 산을 끊어서 건축을 했든 관계로해서 3년동안을 흑석동에 일대 또는 본동일대에 사태가 밀려서 수백호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시당국과 또는 학교당국에 또 건의해 왔읍니다만은 아직껏 시정이 되지않았다고 하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한가지 흑석동 지대는 좀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관계로해서 한강이 증가가 되면 자연 이곳은 침수가되고 한강이 감수되면 자연감수되어서 비만 오면 늘 침수가 되었든것이 재작년에 육해공군묘소에 가는 도로를 축조한 후에는 자연배수 역시 침수됩니다. 그래서 한강이 감수된 그 후에라도 계속해서 침수되는 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오늘 역시 흑석동 일대에는 저지대에 수십호가 침수가옥이있고 또한 수장된 전야가 수만평에 달하는 침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대한 의견겸 그 상황을 보고들이며 그것을 잘 생각해 봤읍니다만은 역시 이자리에 모이신 47명은 어떠한 한구역의 대변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대변해주시고 또한 서울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아주신분이니만치 이번 기회에 저의 관내인 흑석동 본동을 시찰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요망을 여러분에게 말씀들이는 동시에 이것으로서 보고의 말씀을 들이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보고사항입니까?

(「에 중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하는이 있음)

○김재순 의원; 영등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재순이올시다. 실은 어제에도 영등포에대한 수해상황을 보고들일려고 했읍니다만은 더좀 상세히 조사해서 수자적으로 보고할까해서 오늘로 느껴왔읍니다. 특히 서울시내에서 수해를 제일많이 받는곳이 영등포요 마포일것입니다. 서울시 각구에서 올해 사태가 난다든가 소소한 하수도가 맥혀서 물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전차 도로에 모래가 쌓여서 진행이 차단되었다든가 하면 시당국에서는 곧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영등포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년간의 수해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도 다 잘 아실줄압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수해를입고 있었읍니다. 한가지 영등포의 구청에서 잘못된 점이 자리에서 말씀들인다는것은 대단히 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부득이 한마디 들고고저 생각합니다. 없는 살림살이에 갑자기 잘살수없을 것입니다. 없는 살림살이라면은 좀더 규모있고 성의가있고 화기에애한데 있어야할 것입니다. 금년 5월달에는 영등포에 갑자기 600여호가 침수되었읍니다. 이침수가 하류에서 내린 빗물로 침수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나뻐읍니다. 왜 비는 고만오는데 침수가 되느냐 한강물이 영등포로…… 영등포시내로 들어오는 이유는 한강수위보다 땅이 1메-타가 나졌읍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서 일제때부터 수문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강원도 지대에서 폭우가 내려서 그 빗물이 영등포시내로 들어오니까 비로서 그 수문을 닫으려고하니 이 수문이 잠겨지지 않아요. 하루밤 사이에 잠글려고 보니 “메다루”가없어지고 열쇄가 녹이 썰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말씀이에요. 결국 간신히 열쇠를 부시고 구사일생을 해서 하루

밤 사이에 잠겼으나 이미 물은 들어와서 수만평에 깔린 농작물이 수장되어 버렸고 600여호의 침수를 당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시 당국에서는 영등포를 번두리 취급을 한다말씀이예요. 영등포에는 저 수문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 당국이 저만한 일을 감독할 능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민의 전체적인 일이며 구민이 우려하는 바로서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서울시 당국에 구호를 요청하러 왔을적에 무슨 결재를 받느니 무엇을 받느니 하다가 나중에 비로서 가마니 2천장 실어다주는것 밖에 없었습니다. 180만 서울시민의 경비를 가지고 수문마저 사람들을 가지고 잠그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잠을 잘수 있습니까? 이러한 등등으로 볼적에 우리 서울시 행정은 한가지 형식적이고 진전없는 살림살이 규정없는 살림살이고 이것은 너무나 등한시 했다는 이 책임을 이자리에서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제 각 구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이 보고사항을 하셨습니다만은 서울시장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數字的으로 말씀드립니다. 수해로 말미암아서 지금 영중학교 영세애육원 여기에 집단 수용된 사람이 천여명 이재민이 2,835명이나 되어있습니다. 침수가 지금 546호 이 모든 실정을 볼적에 눈물없이는 우리가 영등포실정을 동정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835명의 이재민과 현재 각 학교에 집단 수용되어있는 이 이재민 이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년에 세 번 네번 이런일을 당하고 있어서 수재 여기에대한 보고사항을 안들일려고 했습니다만은 근본적 시책은 근본적으로 이런 수해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보았어요. 오늘날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전부 경찰이

하고있어요. 녹화운동도 경찰 수해대책도 경찰 도로수선도 경찰 우리는 경찰을 너무나 월권시켰습니다. 오늘도 대방동파출소에서는 그대로 옆에 배수구가 끊어져서 모두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수구는 오래전부터 다 끊어져가고 있었읍니다. 그래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어제 비로 말미암아 몇백만환 손해를 보고 있지요. 이러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갔더니 몇백명 동원시켜서 일하고 있고 구청사람도 나와있어요. 서장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화운동도하고 도로수선도하고 모든것을 할적에 경찰이 한다고 비난을 하지만 실지 다급하니 어찌하겠소 하니 내가여기서 말씀들이는것은 특히 해방후에 공장도 대부분 파괴되고 효율이 나오는 공장은 전부 1할5분○에 팔리고있는 여기에 1년에 세번 네번 수해를 당하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염려되고 서울시에서 인천까지 갈동안에 지금 태창방직 앞에 도로포장을 했드라도 어제 차가 빠져서 못다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도 3년동안 오늘에라도 구성할 시 위원회에서 이런것을 참작을 해서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각 구에서 수해에 대한 보고말씀이 있기에 부득이 이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예요.

여기 의원께 제가 호소하고 싶고 동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당국과 8할이상을 점하고 있는 영등포구청이 해마다 세번 네번 수해를 당하고 있는 그 실정○○의 변두리에 판자집을 짓고 이북월남 동포들이 고생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해를 계기로 해서 특히 영등포 이재민들이 기대한 시의회가 생긴 오늘날 이 의회에서 시 당국 책임자께서 똑똑한 구제책이 있기를 간절히 비는 동시에 저는 이 모든 보고사항을



시 최고 책임자에게 말씀드리고 각구에서 말씀 들였기때문에 영등포구에서도 부득이 보고사항으로 이말씀을 단상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장긴급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에 말씀 하세요.

○이익렬 의원; 중구 5구에서 나온 이익렬이 올시다. 실은 어제 보고사항때에 중구 5구의 이익렬은 입을 다물었드냐 하는

(소 성)

말씀을 들어서 제가 오늘 나와서 결과를 엿줄가 했습니다만은 과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5구에는 방산동이 끼여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 선거후에 판자집 철거를 하기때문에 민주당을 해주었드니 판자집 철거를 했다고 대단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 3일후에 제가 가서 단단히 밀고 제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되었다고 빌었습니다. 그 과연 어저께 그 판자집 나무데기를 강제 철거하는데 어린애들이 울고 불고 아우성속입니다. 그 철거 대상자가 233세대입니다. 그들이 저의 집에와서 당신은 입을 다물었드리느냐 이러한 판자집 철거를 갖다가 유명무실하게 대책이 없이 하는것을 보고도 말을 못하느냐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보고겸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에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보고가 왔고 저의 좀 별다른 보고라고해서 오늘 이자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을 제정하고 또 이것을 양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이중구 의원; 우리의회는 각분과 상임위원과 그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이마당에 서울시는 탄시와 또 달려서 특별히

전국민이 주목을 하고있는 본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출하시는데 대하여 특별히 신중을 기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신중을 하려면 시간의 여유를 주시며 오늘 본회의를 이걸로 다 폐회를 하고 내일 다시 들어가서 상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삼청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김진용; 이중구위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습니다. 이 동의는 성립됐습니다. 이 동의에 가하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부하다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석의원 36명, 가 23표 기권 13표로 가결됐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걸로 산회합니다.

(11시 20분 산회)

---